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FY09 상반기 재보험 거래 규모 확대 vs 적자폭 증가

- 금감원은 FY09 상반기 보험회사의 재보험 거래(출재+수재)규모가 전년동기대비 7.7% 성장한 7조 4,372억원을 기록하였으며, 수재와 출재 실적은 각각 6.9%, 8.2% 성장한 2조 9,081억원과 4조 5,291억원인 것으로 발표함.
 - 재보험은 위험분산을 목적으로 원수보험회사가 인수한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회사 혹은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계약으로 일종의 보험회사가 가입하는 보험임.
- 생명·손해보험회사 등과 같은 원수사의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8.3% 증가한 42조 5,650억원이며, 수재보험료는 3,077억원, 출재보험료는 3조 6,992억원으로 나타남.
 - 생명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1조 4,75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.2% 증가한 반면, 수재실적은 전년동기와 유사한 수준인 109억원을 기록함.
 - 손해보험회사의 출재보험료는 2조 2,2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.1% 늘어났으며, 수재실적도 20.1% 성장한 2,968억원을 시현함.
 - 반면, 코리안리 등 전업사의 경우에는 재보험거래 규모가 3조 4,303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.0% 성장한 것으로 나타남.
- FY09 상반기 재보험 거래(원수사+재보사) 해외수지차는 3,438억원의 손실을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29.9%(792억원)가 증가하였으며, 이 중 원수사의 해외수지 손실 규모는 577억원으로 감소한 반면, 전업사의 손실규모는 2,861억원으로 확대됨.
 - 이는 코리안리, 쉐르리, 윈헨리, 스위스리 등과 같은 8개 재보험 전업사의 해외수지손실이 전년동기대비 1,997억원이 늘어났기 때문임.
- 이에 금융당국은 재보험거래 특성상 해외출재 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해외 재보험수지가 적자를 면하기 힘든 측면이 있긴 하나, 해외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선 국내 담보력 강화, 국내사간 상호출재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(FY09 상반기(4~9월) 재보험거래 현황 및 시사점, 금감원 손해보험서비스국, 1/14)